

## NK Defector 2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세계 각 국의 대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약하게나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세계상에 알리려고 이 연단에 나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 came here to contribute what I can to raise awareness of how seriou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저는 2011년 5월에 탈북하여 11월에 남한사회에 정착하였습니다.

I defected in May 2011, and arrived to Republic of Korea in November 2011.

제가 북한에서 겪은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I will briefly talk about my experience in DPRK

2010년 8월에 중국에 전화했던 이유로 보위원들 6명이 집에 들어와 가택수색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 저를 쇠고랑을 채워서 체포해 갔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직경 10cm에 길이가 1m되는 참나무로 머리를 맞았고, 무릎을 꿇어 앉혀서 여러 명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책상머리에 부딪혀서 눈썹 가장자리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 뒤 구류장에 끌려 들어가 계호들에게 구둑발로 채여서 척추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허리가 아파서 간단한 노동력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In August 2010, six security agency officers came into my house and started searching my house and arrested me because I made a call to China. During the investigation, I did not admit being guilty. As a consequence I was hit with a 1m long and 10cm wide oak tree stick. When I kneeled down and was beaten by several officers, I hit the edge of a desk and got a scar on my eyebrow. Then, I was dragged to the detention facility and they kicked me until my spine bulged out. My wrist is still not in good condition, and cannot even do simple labor.

저는 구류장에 감금되어 있는 기간 보위일군들과 간수들이 수감자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합니다. 실례로 당시 30살이었던 이춘희 여성을 상대로 교화소에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야밤에 여러 차례 데리고 나가서 성폭행 하고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훗날 제가 바깥에 나왔을 때 그 여성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officers' sexual abuses towards imprisoned women. They frequently called a 30-yrs old woman 이춘희 to sexually abus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will not send her to re-education camp, later she did not go to the re-education camp and was freed. I directly heard this story from this woman.

지금, 북한은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인권유린의 불모지입니다. 범죄에 제일 취약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백성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권력이 무서워 할 말도 못하고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세상입니다.

Unlike the DPRK's claims that it respects human rights, actually the DPRK is a wasteland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infringements, especially for women and children are very serious. However, ordinary people cannot even express anything against the country because they fear a lot about the state power.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북한이 미성년자는 처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9년에 우리 마을에 고아세대에서 있던 일입니다. 고아세대를 한 마디로 해석하면, 부모 없이 방치되어 있는, 북한 식으로 말하면 꽃제비 아이들을 여러 명 데려다가 키우는 가정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아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나니 먹고 살기 위하여 통신선을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 혁명적 행위로 범죄시하면서 그 아이들을 잡아서 두 명은 총살하고 한 명은 피해다니다가 자기 집에서 목을 달아 매고 자살하였습니다. 총살당한 아이들의 나이는 불과 15, 16세 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인권을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 미성년자들까지도 자기의 꿈을 버리고 자살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he DPRK claims that there is no execution for those under the age 18, but this is not true. In 2009, there was an orphan village in my town. This is where many orphans live together. Children in the orphan village also starve. One day, two children from the orphan village and another boy stole a public telephone wire to buy food. The DPRK government declared it as an anti-revolutionary action, and the two orphans were publicly executed. The other boy ran away, but later he was found as dead at his house. He hung himself. The executed children were age 15 and 16. In the DPRK, young people cannot dream, their rights are infringed, and many of them commit suicide.

이렇게 인권유린을 하여 사회적 원성과 국제적 여론이 환기되니까 이제는 실내 사형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실내 사형법이란, 사람의 목을 비틀어 죽이거나 때려 죽이는 방법으로 비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보안소 예심원이며 실내 사형수인 김철호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술 먹고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한 마을에 같이 살던 김수복, 별명 쏘복을 구류장 뒤 켄에서 비공개 사형을 직접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자신이 수복이 목을 꺾어서 죽여버렸다고 실토하면서 양심 어린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정부의 묵인 하에 전국 각지 보안소, 보위부와 같은 법 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공개 실내사형제도를 몇 십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더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These kind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s in the DPRK ups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w it depends on private execution. Private execution is a non-public execution by breaking their necks and beating. One of my acquaintances 김철호 who works as an investigator at a security agency told me a story when we were drinking together. He confessed he killed 김수복 who was my neighbor by breaking his head in a private execution. Similar things happen in every correctional facility and legal institution in all areas in the DPRK. Private execution has been operating in the DPRK for several decades, but it is used more frequently these days.

북한은 나라를 받들고 법질서를 지켜나가야 될 보위부 보안소 사람들이 오히려 각종 악한 범죄를 앞장서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계 사회에 자주성을 버리면 못 산다고 말하면서도, 국가 내적으로는 인민들을 총칼로 탄압하고 각종 인권 유린행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National and state security agencies should be for the people and improve the society with proper law and order, but rather, the DPRK government makes them commit various crimes and inhumane actions. The DPRK says it cannot give up its sovereignty, but the violation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re prevalent.

저는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왔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의 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힘든 걸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북한인권을 바로 잡아주는데 세계적 지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came to this presentation risking my life. My family is still in North Korea, and they may get harmed because of this. But I decided to come here to reveal the truth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refore, I ask for your hard work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DPRK. Thank you for hearing my presentation.